

A FULLY ITALIAN GILLETTE FACTORY

Ferdinando Frega — Nando the Scribe

Gillettenarrative.com

순수 이탈리아산 GILLETTE 공장

THE COMPANY · 04

GILLETTE의 생산 공장이 유럽 곳곳에 — 독일, 영국, 스페인에 — 흩어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고, 나중에야, 아주 여러 해가 지나서야 러시아 시장을 위한 공장이 동유럽의 어느 나라에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나폴리에 EAN 코드와 제품 코드, 심지어 로트 번호까지 갖춘 GILLETTE BLUE II X 10 RAZORS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결코 알지 못했다.

그곳은 10+2 무료, 10+4 무료 판촉 형식으로 계절 프로모션까지 했다 — 진짜 지사의 영업이었다. 다만 공식 사무소는 밀라노에, 처음에는 Via Baldissera 5에, 나중에는 Via G.B. Pirelli 18에 있었고, 아무도 그 나폴리 공장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모든 것을 터뜨린 것은 NIELSEN 데이터였다: 매출과 판매 수량을 대조해 보니 거둬들였어야 할 돈이 비어 있었다 — 그런데 GILLETTE EUROPE의 재무는 제네바에서 국제적으로 관리되었고, 이탈리아에는 자체 현금 창구가 없었다.

매출은 계속 모자랐고, 숫자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지자 우리 대표이사는 밀라노 검찰청의 문을 열고 들어가 성명 불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했다.

비공식 제품을 정품과 구별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한 가지 세부가 곧바로 눈에 띄었다: 포장을 열어 보면 면도기에는 GILLETTE 상표가 붙어 있었지만 — 그것은 경쟁사의 것이었다.

제조의 흔적이 정체를 드러냈다 — 면도날의 특성에서, 면도날의 위치에서, 그리고 품질 관리에서.

수사는 나폴리의 한 지하실에 이르렀다. 그곳에서는 Piaggio 삼륜 화물차가 한 시간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출발했다. 20개들이 84팩

이 — GILLETTE의 표준 형식 — 실린 팰릿 하나를, 회사의 배송 전표까지 갖추고 싣고서, 나폴리 도매상 대부분을 돌았고, 도매상들은 그것을 정품과 섞었다.

호기심이 워낙 커서 그 구역을 이레 동안 카메라로 감시했는데, 위조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진지한 전문가로 드러났다: 배송에서도 생산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 — 마치 동베를린에 와 있는 것 같았다. 하하하.

Guardia di Finanza가 현장을 덮쳐 모두를 체포하기로 했을 때, 그들은 포장, 재고, 분류, 그래픽, 송장 업무에서 일하는 가족들을 통째로 발견했다. 마치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보스턴 지사 같았다.

약 38명이 체포되었지만 시장의 동요를 피하려고 수사는 결코 공개되지 않았다: 고객과 소비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었을 것이기에, 검사는 사건 전체를 봉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말로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 물류와 배송이 결합된 조직력과 품질 관리, 둘째, 심문이 끝난 뒤 그 무리의 여자들이 Gillette Italia에 취직해 일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것.

풀리아 출신인 대표이사는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 그는 괴로워했다 — 범죄 행위와 회사가 입은 피해 때문만이 아니라, 밀라노 이탈리아·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방금 진짜 재능과 품질을 알아보았는데 — 그 재능을 결코 급여 명단에 올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Ferdinando